

55개국 태권도 선수들, 무주에 집결

‘김운용컵 국제오픈대회’ 오늘부터 6일까지 태권도원서 품새·격파·겨루기·시범 발차기 등으로 나누어 진행

2023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2일부터 6일까지 무주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를 문화 콘텐츠화 하고 태권도로 국제 스포츠의교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김운용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북도와 무주군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아시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 협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55개국에서 참가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겨루기와 품새, 시범 발차기, 태권체조, 격파 경연을 펼친다. 겨루기는 17세 이상의 국기원 단종 소지자들이 참가하는 시니어 대회와 15~17세 선수들이 참가하는 주니어 대회가 체급별로 진행이 되며 품새는

연령별(년도 기준)로 개인전과 단체전, 복식전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 초등부야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시범 발차기 부문은 초등부 4인 1조, 중·고등·대학 일반부는 8인 1조 경기로 펼쳐진다. 태권체조는 연령제한 없이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통합부 경연으로 진행된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태권도팀 허준철 팀장은 “무주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만큼 원활한 행사진행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태권도 성지를 제대로 느끼고 그 기운을 받아 태권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무주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포스터.

무주군은 이번 대회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 중 응

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지원업무와 행정절차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태권도원 내 무주군관광안내소를 통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태권도 성지 무주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운용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2017년 서울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2019년까지 개최돼오다 코로나19로 중단, 올해 무주에서 재개돼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2020년 12월 김운용국제오픈태권도조직위원회와 ‘태권도 관련 각종 사업에 동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권도 보급·진흥·홍보에 관한 상호 협력사업과 태권도 관련 사업 발굴 및 지역경제 기여사업, 스포츠 태권도 행사 및 대회 시 시설 이용과 편의제공에 상호 협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 월례회



이종석 신임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사진 오른쪽)이 1일 정장선 회장으로 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전북 체육 발전 최선 다 할 것”

이종석 신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공식 업무 돌입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장선) 이종석 신임 사무처장이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1일 임용장을 받은 이종석 사무처장은 도 체육회 임직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 사무처장(2급)을 끝으로 공식 생활을 마무리 한 이 사무처장은 뛰어난 분석력과 추진력, 소통 행정을 이끌어 온 행정 전문가이다.

또한 전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사무총장, 2023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체육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높다는 평이다.

이종석 사무처장은 “책임감이 무겁지만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소통, 관계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회가 체육발전의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당당한 체육회, 대접받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모으자”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대·내외 활동을 본격 진행하게 되며 체육영재선발대회 제10회 전국체육대회 등 굵직한 대회 준비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이 사무처장은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대의협력국장, 익산시 부시장, 전북도의회 사무처장,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사무총장,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뉴시스



전주유아중과 전남체육중·고 역도선수단 전지훈련팀이 진안을 방문해 전지훈련에 나서고 있다.

전주유아중 역도선수단 등 진안서 ‘구슬땀’

순창북중 등도 전지훈련 예정

지난달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전주유아중학교와 전남체육중·고등학교의 역도선수단 전지훈련팀이 진안군을 방문한다.

전주유아중과 전남체육중·고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3관왕을 배출한 명문학교이다.

앞으로는 순창북중과 순창고가 8월 7일부터 12일까지 방문 예정이다. 이번엔 전주용소중 등 3개 학교 역도팀의 진안 방문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안군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전지훈련을 오는

이유는 진안이 훈련과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진안은 호남의 지붕인 고원 지대여서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기온이 3~4도 가량 낮고 상대적으로 습도도 높지 않다.

전춘성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이번엔 전주용소중 등 3개 학교가 방문하였는데 각 학교가 서로 긍정적인 자극과 영향을 받아서 모든 선수분들의 기록 경신과 함께 누적된 피로가 힐링을 통해 완화되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女축구, ‘젊은카드’ 앞세우나

벨 감독, 여자월드컵 독일전 앞두고 페어 등 집중 지도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인 여자축구대표팀이 독일전에 미리 로 불리는 어린 선수들을 파격 기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롤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3일 오후 7시 호주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FIFA 랭킹 2위 독일과 대회 조별리그 H조 최종전을 치른다.

앞서 콜롬비아(0-2 패), 모로코(0-1 패)에 연달아 져 2패를 안은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다.

독일과의 3차전에서 5골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16강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조 선두인 콜롬비아가 모로코를 이긴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벤투 호가 9%의 낮은 확률을 뚫고 16강에 올라 기적을 연출한 적이 있지만, 여자대표팀은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다.

대표팀 내 부상지도 늘고 있다. 훈련 도중 발목 인대가 파열된 골키퍼 류지수(서울시청)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지소연(수원FC)은 모로코전 경합 도중 충돌로 제 컨디션이 아니다.

또 모로코전 키오프 직전 종아리 통증으로 이탈한 핵심 수비수 임선주(현 대제철)는 아예 훈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임선주는 근육 파열이 의심돼 독일 상대 최종전 역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냉정히 볼 때 사실상 탈락이 유력한 한국은 미리 위를 위한 희망을 놓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2018 러시아 남자월드컵 때도 비록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2-0으로 꺾어 박수를 받았다.

벨 감독이 독일전에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는 알 수 없으나 경기를 앞둔 훈련에서 케이지 유진 페어(PDA)와 천가람(대전 KSP) 등 어린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이 생겼다.

들은 모로코전에 후반기 교체로 나와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페어는 큰 키를 바탕으로 몸싸움 등 경합에 능하고 천가람은 빠른 풀백이 장이다.

벨 감독이 어린 선수들의 활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들 ‘젊은 피’가 마지막 경기에서는 선봉로 본격 기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뉴시스

김제시, 도민체전 3차 추진상황 보고회

막바지 준비 단계 돌입

김제시는 대회 30여 일을 앞둔 지난 달 3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3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 아래 국단소장 및 전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각 부서별 담당 업무 추진 상황과 남은 한 달간 최종 계획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등 막바지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개·폐회식과 환영 만찬 성하 봉송



등 공개행사 연출 계획과 환경 정비, 안전과 의료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도로·교통 시설물 점검 및 보수, 호우로 인한 제조직업과 포트홀 정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김제=곽도태기자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6시~8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출연진 국민MC - 서정우
가수 - 백미현(난바람, 난눈물) 이태원(술개, 여인아) 박영일(축제) 노스텔지어(별미소) 백영주 최영준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